

2007 교육연구소 학술 심포지움 기초발제

인천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

나근형*(인천광역시 교육청)

오늘 학술 심포지움에 참여하신 교수, 연구원, 선생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귀빈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와 우리교육청이 주최하고 인하대학교가 후원하는 학술 심포지움 개최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I. 현대 사회 변화와 교육 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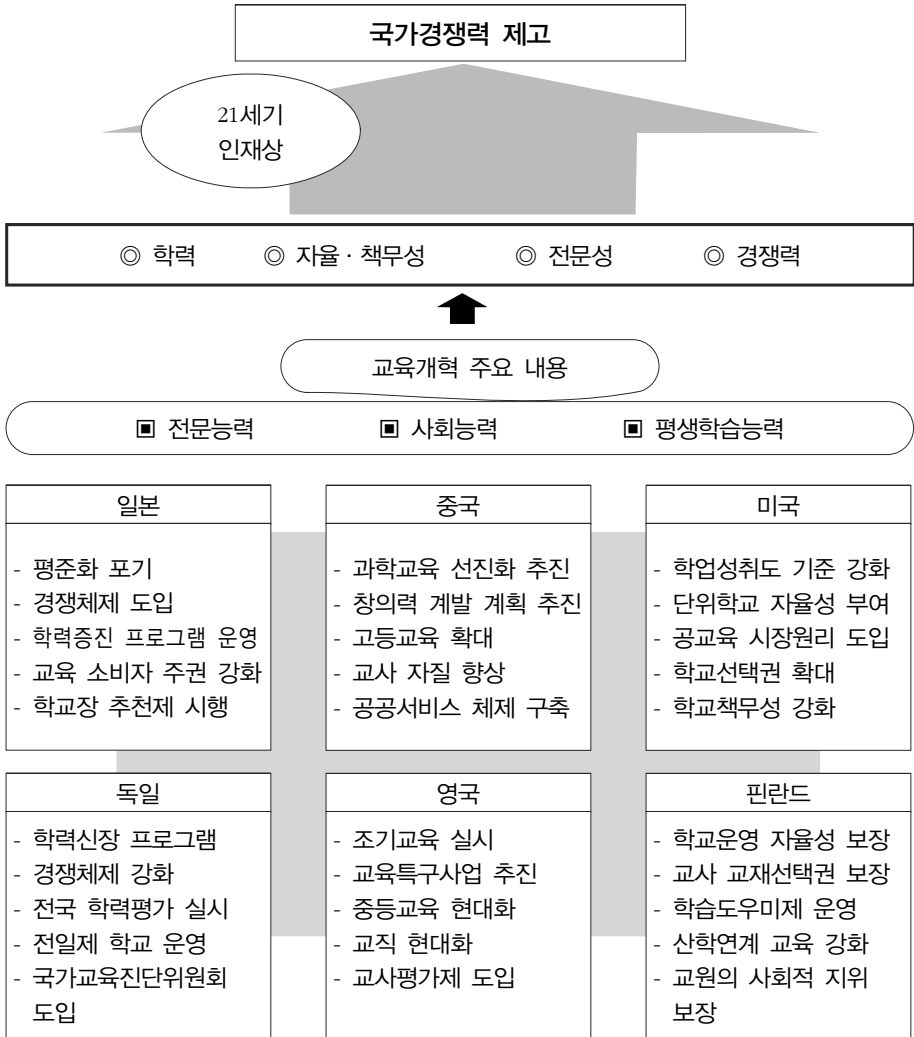
현대사회는 지식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더욱 특화되고 하위 부분으로 계속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 분야에서는 일과 교육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평생 학습의 필요성 증가, 학습 기회의 다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급진전은 교육(학습)기회를 찾아 이동함으로써, 국경의 의미가 축소되고, 국가 뿐 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도 각각의 상황에서 세계화되고 국제화된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교육에서도 창조적 인재양성, 평생직업능력개발, 교육복지 개념 확대,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실현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여건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dasaria@ice.go.kr

[그림 1] 국제적 교육의 여건 변화



자료: 경기교육발전계획 2005-2009(2005).

II. 한국 교육의 일반적 상황

한국 교육은 짧은 기간 동안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교육연수와 대학진학률은(82.1%, 2006년)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학업성취도 또한 국제평가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두는 등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이러한 교육발전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공헌하였으며,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PISA 2003 : 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

※ TIMSS 2003 : 수학 2위, 과학 3위

※ IMD 교육부문 국가경쟁력 : 42위(06) → 29위(07)

그러나 한국 교육의 상황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IT 강국을 이끈 정보 인프라와 기술력, 풍부한 고학력 인적 자원과 같은 부분은 한국 교육 잠재력의 바탕이 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반면에 치열한 대학입시 경쟁으로 빚어지고 있는 사교육 시장의 팽창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고, 다양한 교육 관련 단체들의 등장과 이슈에 따라 대립과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교육 주체들 간의 갈등은 한국 교육 발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감한 교육 혁신이 전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주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초·중등교육의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Ⅲ. 인천 교육의 일반적 현황

잘 아시다시피 인천은 개항 이후 외국의 신문물이 들어오는 관문의 구실을 하였고 지금은 하늘과 바다를 잇는 국제 물류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생동하는 도시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총 787개에 이르는 유치원·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가 있고, 47만여 명의 학생과 2만 6천여 명의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의 지역 교육청과 연구원, 연수원, 도서관 등 20개의 직속 기관이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조 8천 5백 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Ⅳ. 초·중등 교육의 현황

첫째, 학생들의 기초학습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초학습 능력을 국민 기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성취해야 할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책임교육 체제의 핵심을 ‘학력인천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기초학습부진학생의 책임 지도와 교수 학습 방법 개선, 그리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1% 미만의 기초학습 부진 비율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를 마련하고 맞춤형 장학과 좋은 수업 분위기 만들기, 학생의 눈높이를 고려한 지도 자료의 개발, 지도교사 연수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심각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내로 흡수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

고 있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의 관건은 학교의 역할 제고와 학교 교육활동의 내실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센터 중심의 e-Learning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용 콘텐츠 개발 보급과 ‘인천 e스쿨’이란 이름으로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 제공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에서 After School 개념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 양극화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교육과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보육프로그램, 그리고 수준별 보충학습 등 3개영역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함으로써 5년 안에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한다는 큰 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의 소질·적성·능력에 맞는 교육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초·중등학교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특성화를 지원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수용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며 학생의 소질과 능력의 계발은 교육의 본질적인 과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하여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1교1특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자인고, 생활과학고, 국제물류고와 앞으로 설립예정인 인천국제고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 여 명의 영재학생을 선발하여 22개 기관 100학급에서 잠재 능력을 일깨워 키워가고 있으며 발명교실과 탐구 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및 예체능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재능, 적성을 계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각급학교에 243명의 원어민교사를 확대 배치하였고,

초·중·고 236개교에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교육연수원 외국어수련부에서는 Jump into English, Reach for the World 등 다양한 영어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어사용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2007년부터 영어영재교육원을 개원하여 42명을 대상으로 영어영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정보화 사회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교육 정보화와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가 넘쳐나고 정보기술이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스스로 문제를 확인하고 적절한 정보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내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정보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근간이 바로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와 교육정보 인프라 활용도의 증진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와 교실에 ICT 활용교육이 가능한 시설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구축하였으며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장서 확충, 자료목록 DB구축을 통하여 ‘정보통신 일등국가’ 답게 유비쿼터스 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소홀해지기 쉬운 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을 기르기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귀히 여기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민주 시민으로서

의 자질을 갖추나가는 것은 미래 사회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효교육, 향토애호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등 실천·체험위주의 인성교육과 학생 자원 봉사활동과 진로 상담교육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경제 교육과 푸른 학교 가꾸기를 실천하고 건강한 심신을 기를 수 있도록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V. 초·중등 교육의 발전 방향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WTO체제 이후 국가간 경쟁과 연계 구조가 개편되고,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건을 교육으로 판단하고 교육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육의 모습 또한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민주 의식에 따라 교육에 대한 기대와 관심,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교육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면서도 국민에게는 신뢰와 만족을 주어야 하는 큰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꿈·보람·만족을 주는 희망찬 인천교육’이란 이름으로 ‘2006-2009 중기 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의 발전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교육의 내실화로 교육의 질을 높여가야 합니다.

한국의 공교육은 양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질적

으로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입니다.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특히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최근까지만 해도 사교육 시장이 계속 팽창하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육 방법을 계속 혁신해 나가야 하며,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교육 여건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개선하여 즐거운 학교,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U시대에 걸맞은 교육행정 시스템의 선진화로 지식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의 신규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바야흐로 '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로 다져진 IT강국의 위상을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 사회가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미 DMB라고 불리는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이 시작되었고, 차세대 무선서비스라고 하는 와이브로(WiBro)와 3.5세대 이동전화서비스인 HSPDA도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최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e-learning, u-learning 교육방법을 발전시키고 학교 도서관과 과학실 등 학교 시설을 다목적 첨단 교실로 조성하여 지식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미래 학교 경영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해 나가야 합니다.

교육 격차와 사회 양극화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학업 성취도의 격차로, 장기적으로는 학력간 임금·소득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더구나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변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 가족 등 가족 형태의 변화, 다문화 가정과 근로 빈곤층의 증가 등으로 공교육의 복지 기능 강화와 교육적 대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막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일이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처해야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저소득층, 낙후 지역, 장애학생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교육비와 보육비 증가의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학교에서 최고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교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교육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 공유를 통한 교육 혁신과 발전을 이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성숙된 민주 의식과 높은 교육적 관심이 한국 교육의 혁신과 발전의 동력이 되게 하려면 자율과 분권, 개방과 참여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의 변화는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자신의 일을 책임있게 수행하려면 그에 따른 권한도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 공동체가 자율적, 협동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자치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교육정책 추진의 주요 원천이 되는 것이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 통로를 통하여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 교육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 현장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해 교육의 원동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는 학생들에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 혁신의 의지를 담은 인천 교육의 비전에 따라 모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주는 방향으로 인천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소중한 학술 심포지움의 장을 마련하신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